



▲ 채권전략

Analyst 윤여삼

02. 6454-4894

yeosam.yoon@meritz.co.kr

The Bond Weekly

새로운 자극, 이 또한 금리상승 위험

중동 리스크, 안전선포보다 유가상승에 따른 채권시장 부담

미국채 투자는 2분기 현재 난항이 너무 많음. 4월 해방의 날 이후 외국인 매도 위험, 5월은 BBB 법안기반 재정 신뢰성 문제, 6월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충격까지 부정적으로 작용. 그나마 5월까지 관세충격에도 물가우려가 통제되었다고 안도하기가 무섭게 유가상승으로 불안심리 유입 중

그럼에도 우리는 3분기 중 BBB 법안이 10년간 2조달러대 적자로 비교적 균형을 잡고, 고용지표 중심 경기둔화 압력이 높아지면 미국채 투자기회는 여전히 남았다는 판단. 이번 주 6월 FOMC에서 연준은 인하의 시그널을 주지 않겠으나, 완화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파 성향도 적당히 통제할 것. 점도표는 올해 2차례 인하 정도로 유지하며, 추가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정도 중립적일 전망

국내 위험선포 및 경기바닥 통과 기대, 통화정책 기대 후퇴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 기대로 금리는 올랐지만, 주가와 원화가치 상승 등 경기가 큰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인식 강화. 신정부 긍정적 분위기 이면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불확실성 높은 제도 관련해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 의구심 증대

우리는 아직 올해 0.8% 성장을 기반으로 2.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 중이나 이미 시장의 기대는 자칫 올해 2.25% 1차례 인하에 그칠 수 있다는 위험을 반영 중. 우리는 세미나 등을 통해 8월말 1)내년 예산안 + 2)8월 금통위 통화정책 스탠스 확인까지 금리는 상단 테스트 위험이 남았다고 설명 중

지난 주 WTI 배럴당 64달러에서 77달러까지 급등했다가 73달러로 마감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동 리스크, 안전선호보다 유가상승에 따른 채권시장 부담

유가상승 우려 크게 작용하며
미국채 금리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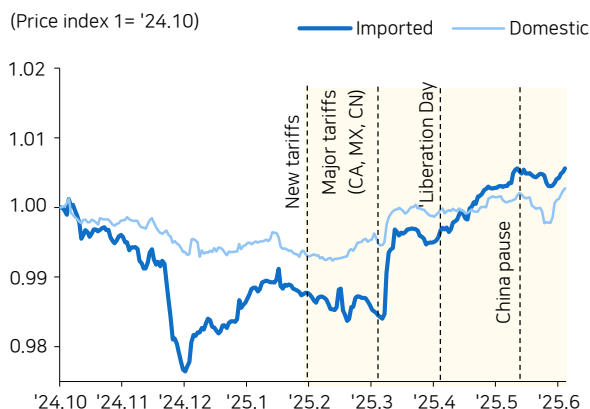
양호하다는 평가가 의아한 5월 고용지표 영향으로 4.5% 부근으로 올라온 미국채 10년 금리는 지난주 CPI와 PPI 결과 확인 후 레벨을 다시 4.3%대로 낮추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위험 부각으로 일시적 안전선호가 유입되는 듯 보였으나, 유가상승 우려가 더 크게 해석되며 4.4% 부근까지 반등했다.

이스라엘 vs 이란 전쟁은 텔레그램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지난해 대비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러-우전쟁 같은 전면전 장기화 가능성은 아직 낮게 평가하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유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물가지표 예상보다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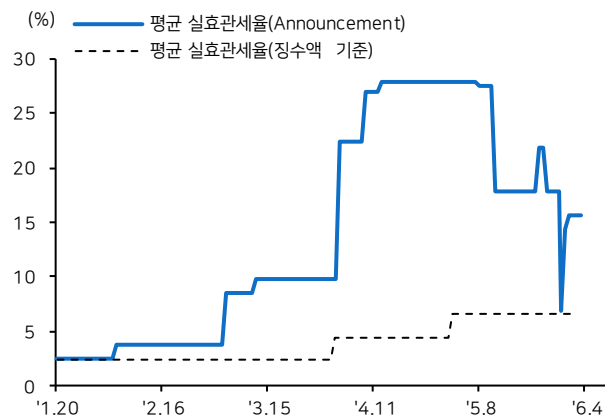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전쟁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미국 5월 물가지표들은 여전히 예상을 하회했다. 수입품 물가가 내수품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익히 관찰되어 왔으나<그림 1>, 정부가 통제한 관세율보다 실제 통과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은 6%대로 아직 낮은 편이다<그림 2>. 관세 민감도가 높은 오디오와 세탁기같은 가전 및 완구는 상승세가 높았으나, 소비관련 재화 서비스는 오히려 둔화되었다.

그림1 미국 내 수입품과 국산품 소매 가격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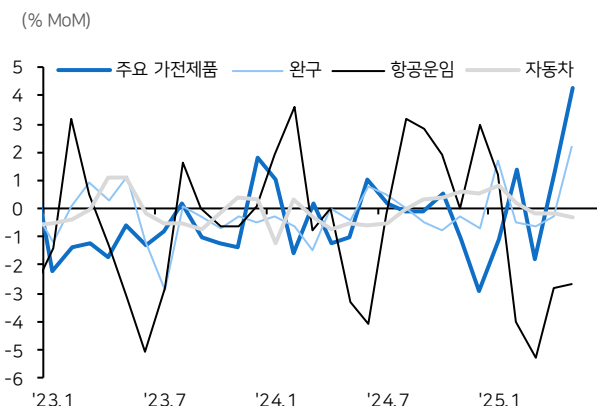
자료: Harvard Business Schoo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발표보다는 미국 실제 통관기준 관세율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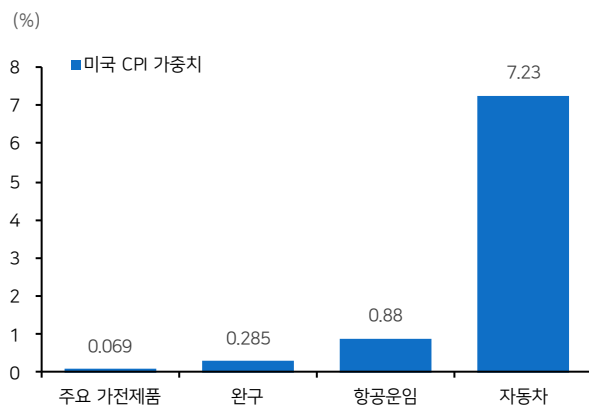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he Budget Lab at Yal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가전과 완구 등 수입물가 올라도 항공, 자동차 감소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미국 물가 안정적 이유, 수입물가 가중치지 않아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가중치 높은 품목의 물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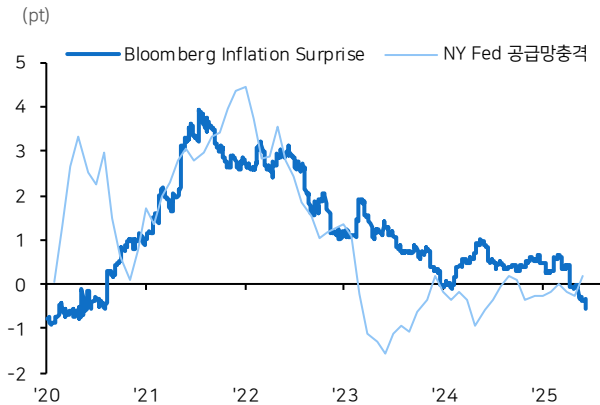
달러강세 구간에서 고공행진을 했던 항공운임은 소비탄력 둔화와 함께 수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신차 및 중고차 역시 올해 내내 마이너스 증가세이다<그림 3>. 핵심가전제품과 완구 등 재화의 물가 비중은 낮은 반면, 둔화세가 두드러진 항공운임이나 자동차는 가중치가 높은 편이다<그림 4>.

보편관세 경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

관세부과 충격이 일부 제품에만 부과되고 있어 10%대 보편관세로도 미국 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4~5월 연속으로 미국 물가지표들이 예상을 하회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둔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현재 물가모멘텀 지표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고, 공급망 충격 우려는 아직 전쟁충격이 유입되지 않아 안정적 수준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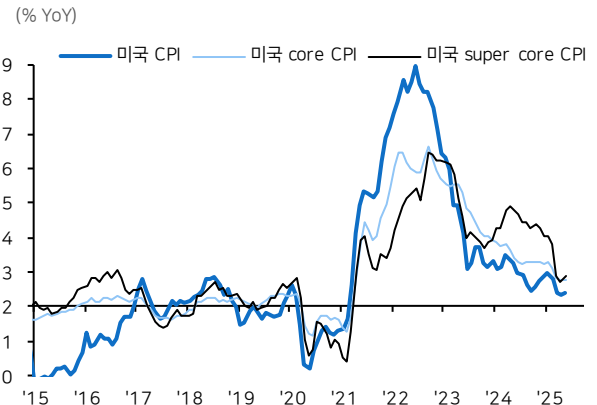
5월 미국 헤드라인 CPI는 2.38%, 코어는 2.77%, 슈퍼코어는 2.86%이다<그림 6>. 일부 기저효과 유입으로 소폭 반등이 있었다고 하나 1분기 연율화 기준 재화와 서비스 공히 물가탄력은 둔화 중이다<그림 7>. 관세충격이 재화 민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았으나, 자동차+에너지 안정으로 재화물가는 낮다<그림 8>.

그림5 예상보다 안정적인 물가모멘텀, 공급부담 역시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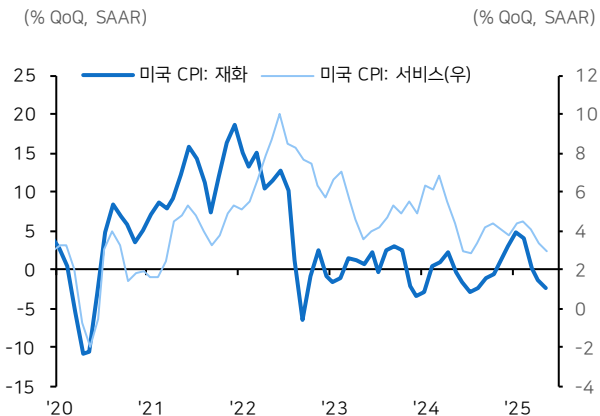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Y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일부 기저효과 유입에도 미국 CPI 안정범위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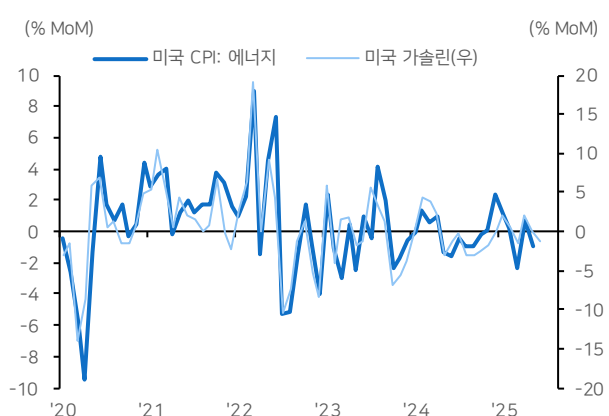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관세충격에도 재화물가 안정, 서비스도 모멘텀 둔화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가솔린 안정=에너지 안정, 전쟁 부담 지켜봐야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물가, 우려했던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필자가 하반기 전망에서도 강조했지만, 1)트럼프가 에너지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2)미국 CPI와 PCE 비중이 가장 큰 주거비가 월세의 선행지표 안정을 쫓아가면, 3)관세충격으로 인한 재화물가는 기업들의 원가충격 흡수 등이 더해져 미국 물가가 우려한 것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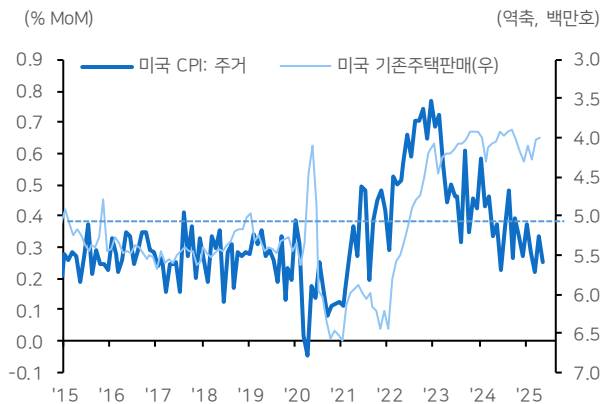
주거비 안정 흐름 지속

실제 미국 주거비는 올해 월평균 0.29%로 연간 3% 내외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그림 9>. 지난 2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반 양호한 경기와 유동성 여건으로 집값도 올랐지만, 최근 집값 및 월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그림 10>. 전쟁 위험으로 유가 및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되었지만, 몸통물가는 비교적 무게를 잡고 안정되는 방향이다.

ISM 서비스업 지수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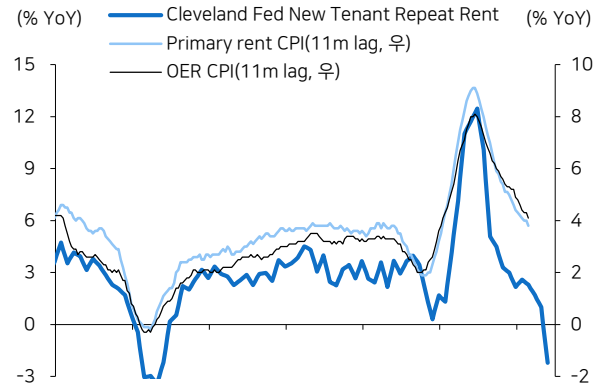
자동차 가격이 다시 안정되면, 보험료 등도 안정될 것이고, 전반적 서비스 물가의 안정은 슈퍼코어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그림 11>. 이달 미국 물가관련해 필자가 주목한 지표는 ISM 서비스업 지수이다<그림 12>. 현재도 ISM 서비스물가는 올랐지만, 수주와 종합지수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림9 주거비 올해 평균 0.29%, 연 3%내외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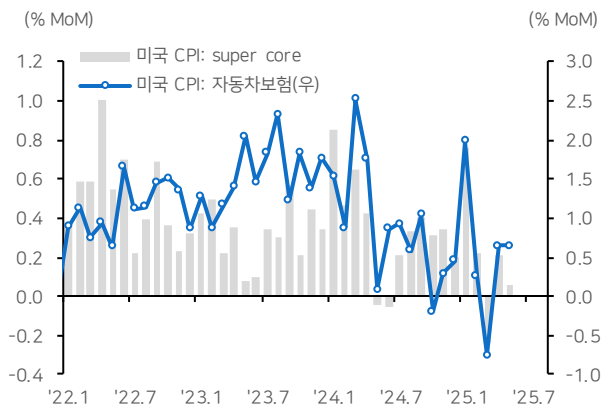
자료: US BLS, US NA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주거비 선행지표의 안정, 몸통물가 우려는 일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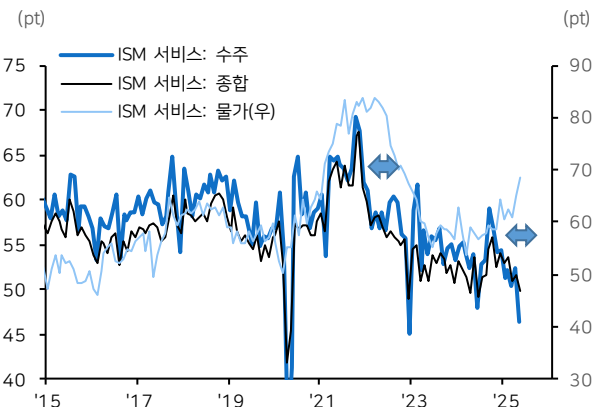
자료: CV Fed,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자동차 보험료 무난한 상승, 슈퍼코어는 안정적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미국 서비스업 경기탄력 둔화, 물가안정 기여도 봐야



자료: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경제의 80%가 서비스업이고 큰 산업의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시차를 두고 서비스물가도 안정세를 찾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담스러워 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원유생산은 증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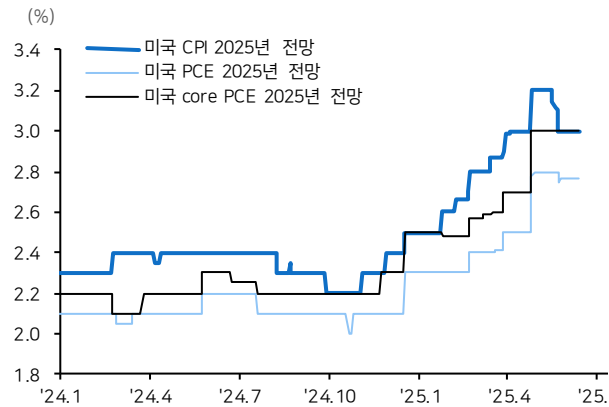
물가전망이 가팔라질 조짐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트럼프 당선 후 양호한 경기와 관세우려로 줄 곧 오르던 미국 물가전망치가 최근 소폭이지만 반락했다<그림 13>. 아직 절대수준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나 관세 이슈로 다시 물가전망이 상승추세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CPI 뿐만 아니라 관세민감도가 더 높은 PPI의 경우 역시 이달에도 예상치 0.2%보다 낮은 0.1% 증가에 그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그림 14>.

기대인플레이 지표의 하락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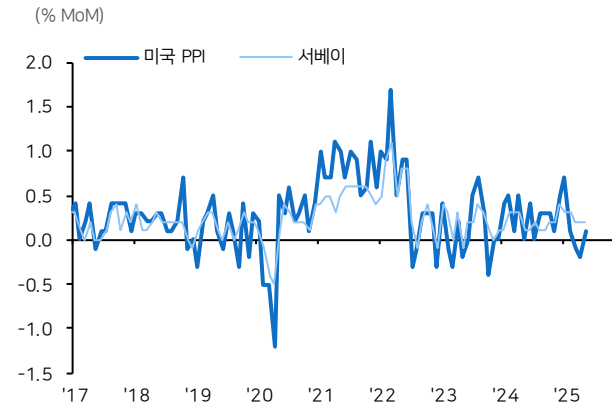
실제 물가지표보다 향후 파월도 강조한 기대인플레이의 통제 역시 중요하다. 지난 주말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 지표는 1년 6.6% → 5.1%로 큰 폭 하락했다.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보다 민감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뉴욕연준 등 타 기관들의 지표도 반락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시장 기대인플레이인 BEI 또한 증가기준 7% 정도 오른 유가만으로 상승세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다<그림 16>.

그림13 관세우려 완화, 물가컨센서스 아직은 소폭 반락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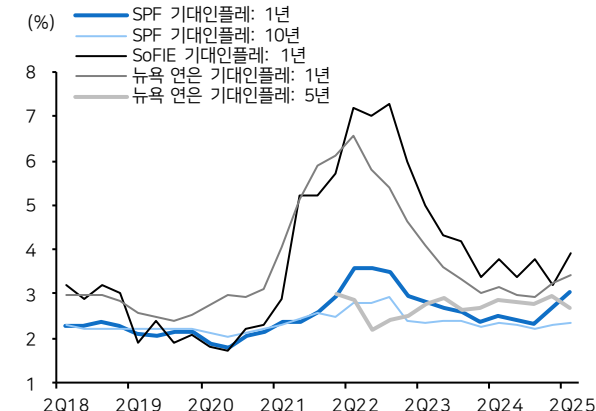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관찰 필요에도 PPI 안정은 관세우려 완화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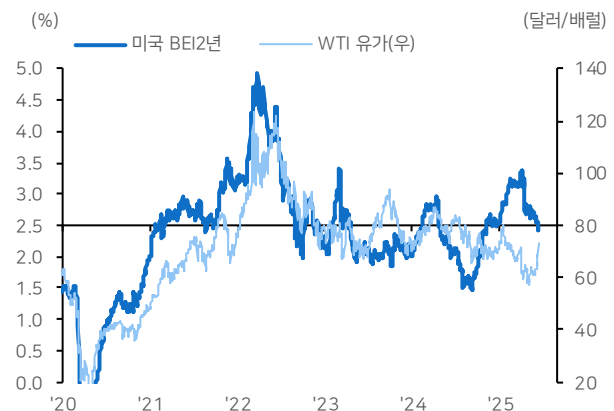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서베이 기대인플레이 지표의 반락이 중요



자료: SPF, NY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유가 급등에도 BEI 민감도 아직은 높지 않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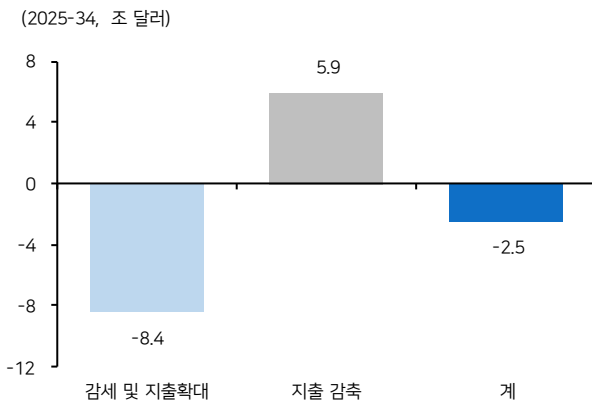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 저하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 요인

인플레이션은 당장은 예상보다 안정적이었고, 향후 관세와 유가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해 나갈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왔다. 한숨 돌린 물가보다 앞으로 1달간 더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재정정책이다. BBB(Big Beautiful Bill) 이슈로 불거진 재정신뢰성이 물가보다 채권시장에 더 위협적이던 5월이었다.

기존 10년간 5조달러대 재정적자를 감내하겠다는 안이 다시 상원통과 전에 2.5조 달러 내외로 균형을 찾고 있다<그림 17, 18>. 실효관세율 20%대에서는 10년간 관세수입이 5조달러를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감세를 5조달러 하겠다는 계획은 관세수입 축소에 맞춰 현실화되는 것이 맞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건강검진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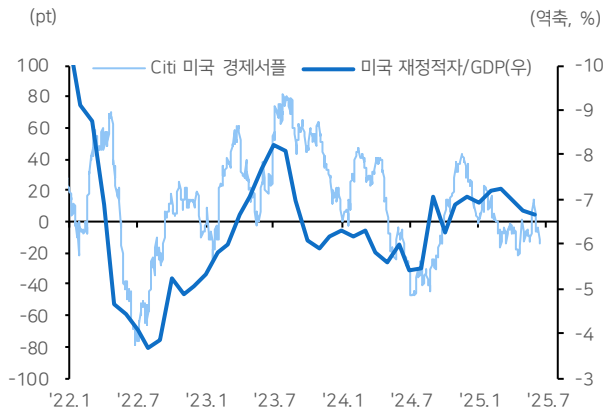
BBB 법안은 7월초까지 최종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이후 X-date(부채한도)까지 같은 매듭지어질 것이다. 이를 감안한 듯 올해 미국 재정적자는 GDP 7%부근에서 5월 6.6%까지 줄어들고 있다<그림 19>. 재정탄력이 줄기 시작하면 성장률 전망은 최근 일부 IB들의 상향조정처럼 높아지지 못할 것으로 본다<그림 20>.

그림17 One Big Beautiful Bill: 감세/지출 확대 vs 지출 감축



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Budge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미국 5월 재재정적자 GDP 6.6%로 계속 둔화 중



자료: Bloomberg, UST,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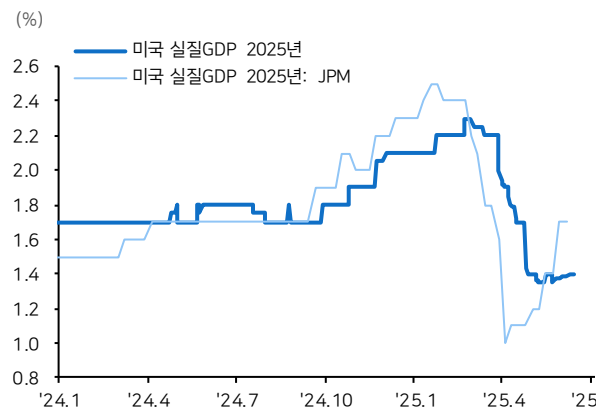
그림18 One Big Beautiful Bill(BBB): 감세/지출 삭감 항목

구분	금액 (2025~34년, 십억달러)
인하된 소득/법인세율 계속 적용	-2,177
최저한세 개혁 내용 계속 적용	-1,414
공제 확대 내용 계속 적용	-1,308
가계 사업자 소득 20% 공제 계속 적용	-820
아동수당 확대 내용 계속 적용	-797
IRA 보조금 삭감	131
전기차 세액공제 삭감	191
에너지, 생산, 제조업 공제 삭감	237
지방세 공제 최대 3만 달러*	916
개인/피부양자 소득공제 축소	1,870

주: * 공제액 한도를 정함에 따른 세수 확보의 의미임

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Budge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JPM 성장률 전망 상향대비 시장 컨센 더디게 진행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다고 하나 물가는 다소 높고, 경기는 다소 낮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은 채권시장에 고스란히 반영 중이다. 미국채10년 4.5%와 30년 5.0%의 상단 테스트 과정을 통해 그나마 수급적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인식이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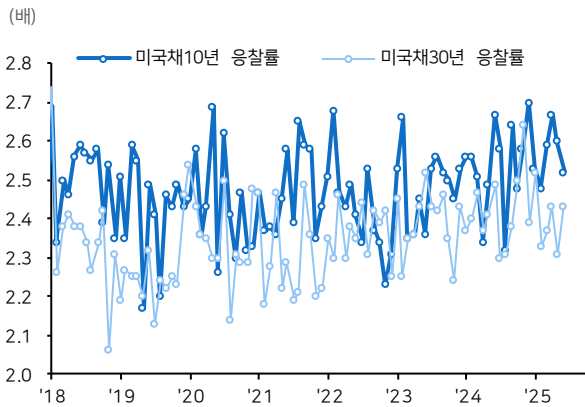
재정우려 일부 완화되며 미국채 입찰 수요 양호

지난 주 10년, 30년 미국채 입찰 관련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그림 21, 22>. 10년은 응찰률과 간접입찰률이 다소 둔화되었다고 해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였다. 수급과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한 30년이 지난달보다 개선된 점은 과도한 재정우려가 일부 완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채 숏포지션 뚜렷한 확대 없이 머물러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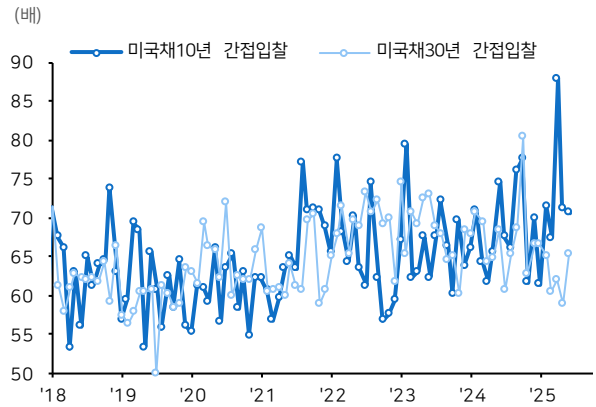
지난해 3분기 미국채30년 금리가 흔들리는 고용지표(sahm-rule)로 반락하던 당시 청산된 숏포지션은 최근 약세분위기에도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그림 23>. 이는 JPM 미국채 투자심리 지표에서도 드러나듯 현재 금리수준은 안전자산 지위만 위협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수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4>.

그림21 6월 10년과 30년 공히 응찰률 개선되며 우려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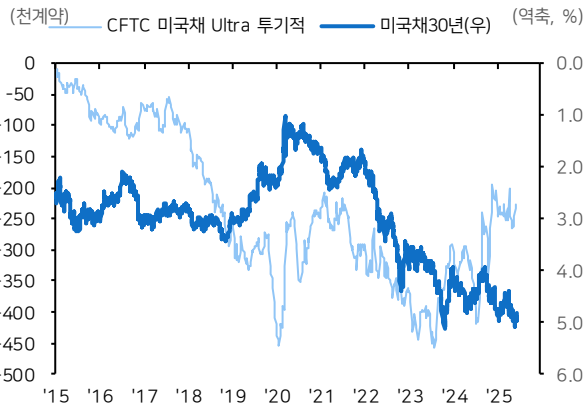
자료: US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외국인들의 간접입찰도 양호한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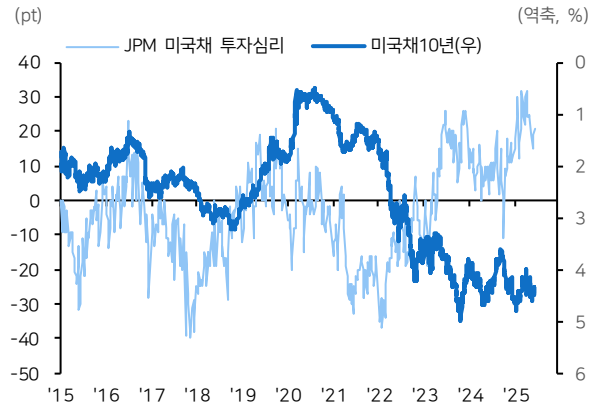
자료: US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미국채30년 5%로 오르는 동안 숏포지션 청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절대금리 수준은 미국채 매수해야 하는 영역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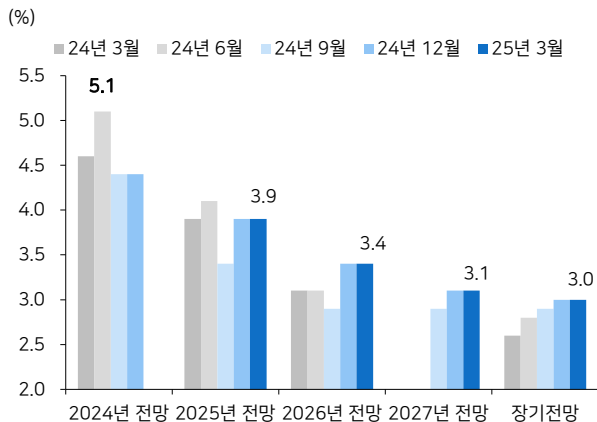
6월 FOMC에서 연준은 균형 잡힌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

이번 주 18일(수) 예정된 FOMC는 상기한 내용들을 종합해 아직은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지표 안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 벵스 부통령까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유가 충격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파월의장은 금리인하의 시그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올해 2차례 인하 점도표는 지켜줄 것으로 본다. 작년 6월 끈적거리는 물가를 이유로 당해 1차례 25bp 밖에 인하를 못할 것이라는 점도표에도 1분기 뒤 빅컷을 포함 100bp나 인하를 단행한 경험이 있다<그림 25>. 올해도 현재 물가는 상방이나 경기는 하방위험이 높은 것 또한 유사성이 크다. 시장은 1분기내 1차례 인하를 의심하는 정도에서 10년 금리를 잡고 있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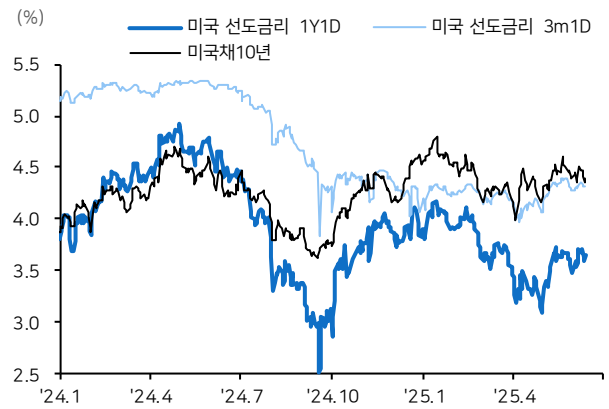
미국 장기금리에 담겨있는 금리부담대비 미국의 위험선호는 추가적인 상승이 부담스러운 영역이다<그림 27>. 우리는 여전히 하반기 연준이 3차례 정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정도의 여건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 120일선에 물려있는 미국채10년 금리는 그 증거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25 6월 FOMC 올해 2차례 인하 점도표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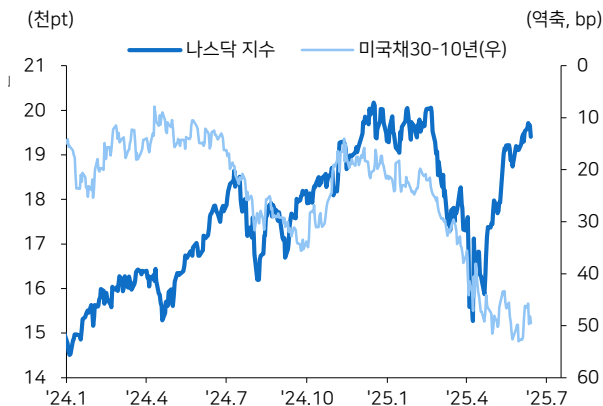
자료: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시장 1분기 이내 1차례 인하 의심하며 균형 유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미국 금리부담대비 주가 반등 가파른 점 부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미국채10년 이제 1분기인 9월 인하 확신하면 4.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위험선호 및 경기바닥 통과 기대, 통화정책 기대 후퇴

국내 채권시장
일드커브 플랫닝 진행

미국금리가 그래도 물가안정으로 반락했고, 국내 역시 과도했던 추경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국고10년은 지난 주 종가 2.89%보다 낮은 2.845%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고3년은 통화정책 완화기대의 후퇴로 인해 2.412%에서 2.462%로 5bp가 오르면서 일드커브는 일부 플랫닝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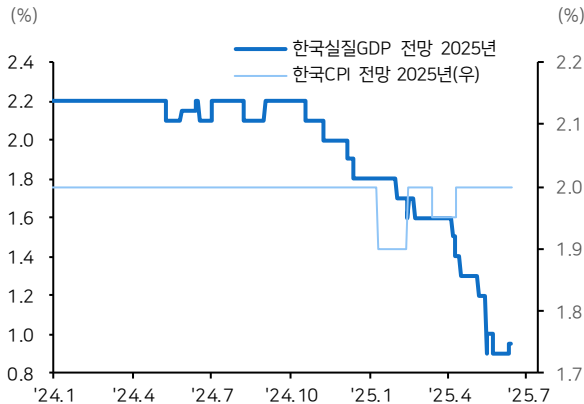
추경 부담 유입에
금리상승세 기록

우리는 대선 이후 확대재정으로 국내 채권시장이 수단으로 이용당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원화채는 기준금리 2.0%를 당겨 반영한 고평가 영역이라고 강조했었다. 실제 대선 이후 시장은 2차례 추경으로 추정되는 20~30조원을 반영 20~30bp 가량의 금리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바닥론 강화 및
위험선호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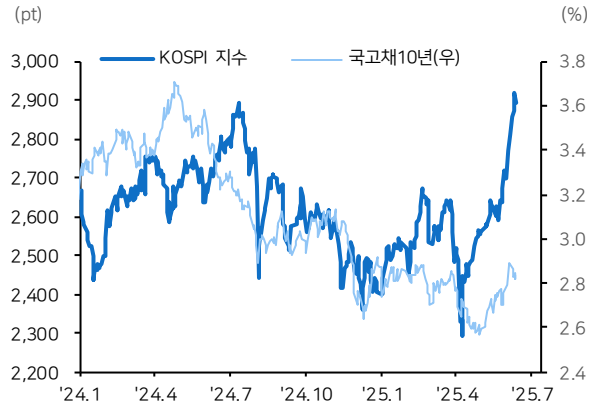
미약하지만 하반기 20조원+a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다시 1%를 향해 부양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내년 성장률은 당연히 올해보다 나은 경기바닥론을 강화시켰다. 이는 금리보다 가파른 주가상승세에 반영되며, 한국의 위험선호를 자극했다<그림 30>.

그림29 한국 성장률전망 소폭이지만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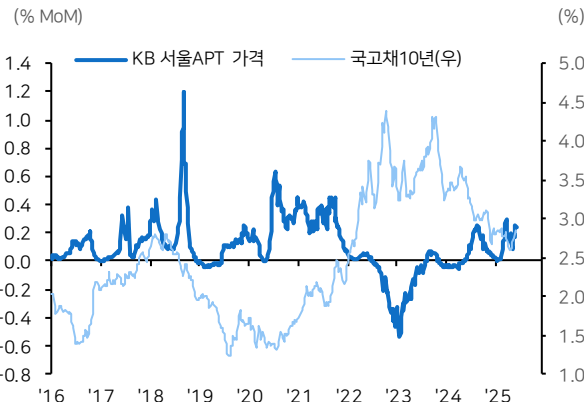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가파르게 오른 주가



자료: KRX, 금융투자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불안, 시장금리 영향



자료: KB은행, 금융투자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2차 추경은 20+a 수준, 8월말 내년 예산 중요

구분	내용
규모	최소 20조 원 이상, GDP의 약 1%
주요 분야	전국민/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지방상권 활성화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 원(지역화폐), 취약계층 추가 지원 가능성
소상공인 지원	빛 탕감, 손실보상 소급 적용 검토
재원	적자국채 발행 중심
집행 시기	6월 중 국회 통과 목표, 신속 집행

자료: Perplexit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확대재정+완화적 통화정책의 조합은 경기와 주가상승같은 긍정적 효과 이외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쭉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다<그림 31>. 우리는 4월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및 올해 추경을 해도 0.8%에 그칠 성장률을 감안 기준금리 전망을 2.25% → 2.00%로 낮추었다.

포워드 가이던스 4분기 인하 2명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

그러면서도 확대재정의 효과가 경기개선에 기여도가 높아질 경우 자칫 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과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신중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때문에 우리는 8월까지의 부진한 경기지원을 위해 2.25% 인하까지는 단행하되 포워드 가이던스 등에 4분기 인하 시그널은 2명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인하 폭에 대한 시장 기대 축소

지난 주 한은 창립기념일 한은총재는 상기한 과정들을 거론하며, 5월 금통위에도 막판 매파의 향기를 강화한 모습이다. 선도금리는 올해 기준금리가 2.25%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3년은 2.5%를 향해 오르고 있다.

채권투자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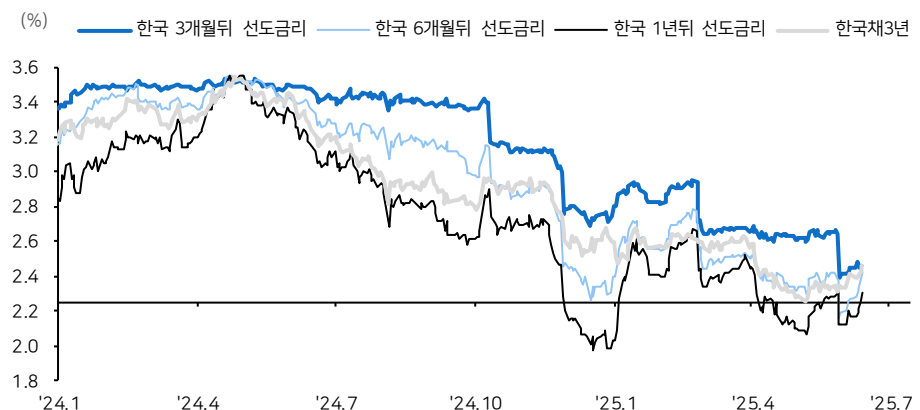
당장 하반기 추경에 따른 국고채 공급부담도 중요하겠으나, 채권시장은 8월 말이 더욱 중요해졌다. 올해 추경은 20조원 내에서 적자국채가 20조원을 넘지 않게 편성되더라도 내년 예산은 좀 더 공격적(당사 추정 8% 내외)일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8월 금통위에서 신중론이 깊어질 금통위 부담도 소화해야 한다.

우리는 기준금리 2.0% 전제하에 국고3년 2.4%와 국고10년 2.9%는 고평가 부담을 덜어낸 매수구간이라고 평가했다. 만일 기준금리가 2.25%에서 인하가 그친다면 그 적정가치가 20bp 내외 정도 높아질 위험이 아직 남은 것이다.

밀리면 사자 유효해 기회를 엿볼 필요

8월말까지 국내 채권시장은 '밀리면 사자' 기반은 유효하되 여유를 가지고 싸게 살 기회들을 엿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단기간 금리인하 기대후퇴로 커브가 플랫압력이 높았다고 하나 내년 예산 확정까지 3/10년 40bp 이내는 다시 스텝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림33 다시 위축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올해 2.25%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이벤트 및 평가(6월 16일 주간)

-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부재한 가운데 6월 FOMC와 함께 주요국 금리결정 대기. 연준의 점도표 인하 횟수 유지, 물가와 실업률 경로 조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 이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국내 채권시장의 민감도를 높이는 새로운 재료로 부상

표1 금주 이벤트 프리뷰

일자	국가	이벤트	중요도	이전치	코멘트
6월 16일	중국	5월 실물지표	★★	—	지표 부진 가능성 낮음. 1) Non-US 수출 증가로 산업생산 지지, 2) 이구환신 효과 지속
6월 17일	독일	6월 ZEW 서베이(현재)	★★	-82.0	기대지수 오름세에 현재상황평가 바닥 통과 가능성 시사했으며 추가 상승에 무게
6월 17일	미국	5월 근원 소매판매	★★	-0.2% MoM	전월대비 보합 예상. 심리가 개선되었지만, 소비 모멘텀 위축되고 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영향 있을 것(블룸버그 컨센서스 +0.3% MoM). 한편 헤드라인 지표는 자동차 판매 부진에 감소했을 공산 커
6월 17일	미국	4월 기업재고	★	0.1% MoM	보합 예상. 평소 살펴보는 지표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쌓아두었던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지 가능하기 위해 당분간 확인해볼 예정
6월 17일	미국	5월 수입물가	★★	0.1% MoM	블룸버그 컨센서스 -0.2%. 수입물가 지표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물가 품목은 상승했고 이외 재화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수입업자들이 관세 비용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6월 17일	일본	6월 금융정책결정위원회	★★★★	0.50%	동결하겠으나 인상 기조 유지 확인될 것. 이보다는 장기물 중심 QT 속도조절 결정 여부가 더욱 중요
6월 17일	한국	국채선물 만기	★★	—	국채선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인 양 기간물을 순매도하는 흐름 (현재 미결제약정 3년 21만계약, 10년 10만 계약)
6월 18일	미국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	1956K	점진적인 증가 예상. 현재의 고용시장 동태는 대규모 해고보다는 채용공고 감소, 신규 채용 축소, 실업 기간 장기화로 분석됨
6월 19일	미국	재무부 4월 TIC	★★	—	4월 중국의 미국채 매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 TIC 데이터에서 확인될 예정. 참고로 3월 중국이 보유했던 미국채 보유량은 765.4억달러
6월 19일	미국	6월 FOMC	★★★★	4.50%	동결+실업률과 물가 전망 상황+QT정책 미세조정 여부 주목. 7월까지 침체 징후 뚜렷하지 않다면 9월 이후 인하 가능성 높일 것
6월 19일	영국	6월 통화정책위원회	★★★★	4.25%	인플레이션 급등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동결 예상. 다만 최근 발표된 영국 경제 지표들은 경기 둔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추가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평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